

화엄사 서오층석탑 발견 『무구정광다라니』의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Mugujeonggwang Dharani
Excavated from West Stone Pagoda of Hwaeomsa

정 경 재 (Chung, kyeong-jae)**

박 부 자 (Pakh, bu-ja)***

◁ 목 차 ▷

- | | |
|--------------------------|--------------|
| 1. 서론 | 4.2 空行 |
| 2. 자료 조사 및 판독 | 4.3 隔字 |
| 3. 화엄사 무구정광다라니의
필사 내용 | 5. 부호 |
| 4. 화엄사 무구정광다라니의
필사 양식 | 6. 축천무후자의 사용 |
| 4.1 다라니명 | 7. 결론 |
| | <참고문헌> |

< 초 록 >

화엄사 다라니는 통일신라시대에 유통된 무구정광다라니 전체 모습을 재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 그 자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통일신라시대의 다른 『무구정경』 자료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는 화엄사 서오층석탑 출토 다라니의 내용과 필사 양식, 부호, 축천무후자의 사용 등을 살펴 그 자료적 가치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확인된 화엄사 다라니의 특징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화엄사 다라니에는 『무구정경』의 경문을 제외한 다라니만 필사되어 있으며, 다라니 내 다라니의 암송을 위한 표시들은 필사되어 있지 않다. 여섯 개의 다라니가 한 세트가 되어 반복적으로 필사되었고 최소 28회 필사되었다. 또 매회의 시작 부분에 다라니명 ‘最勝無垢清淨光明大根拳陁羅尼’를 필사하였다. 여섯 개의 다라니를 한 차례 필사하고 다시 다음 차례의 다라니를 필사할 때에는 空行을 두어 구분하는 경향을 보였고, 한 회 안에서 다라니와 다라니를 구별할 때에는 隔字를 두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사실

* 이 논문은 2016년 1월 1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한국목간학회 제23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crudwo@naver.com)

***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rich1125@sungshin.ac.kr)

접수일: 2016년 2월 29일 최초심사일: 2016년 3월 12일 심사완료일: 2016년 3월 25일

을 통해 통일신라 시대에 납탑용 무구정광다라니를 제작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화엄사 다라니가 암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납탑을 위해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삭제부로는 ‘卜’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삭제부 ‘卜’이 쓰인 매우 이른 시기의 용례이다. 이 외에도 전도부, 반복부 등의 부호가 확인되었으며, 다른 신라 사경처럼 축천무후자 ‘塞’도 사용했음이 확인되었다.

要語: 화엄사 서오층석탑, 무구정광다라니, 무구정경, 필사 양식, 다라니명, 삭제부, 전도부, 반복부, 축천무후자

<ABSTRACT>

Hwaeomsa dharani is the only material with which we can reconstruct the overall aspects of Mugujeonggwang dharani distributed during unified Silla. Despite its value as significant material, it has not been much noticed so far unlike other 『Mugujeonggyeong』 materials transmitted from unified Silla. Therefore, this author aims to reveal its value as significant material by examining the contents, patterns of transcription, marks of correction, and the New Characters of Wu Zetian. Regarding it, this study has found some characteristics of Hwaeomsa dharani and summed them up as follows: first of all, only the dharani was transcribed, excluding the Buddhist scriptures of 『Mugujeonggyeong』. The characters needed to recite the dharani were not transcribed. Six dharanis form a set and are transcribed repetitively, and they are transcribed 28 times at least. Also, in the beginning of each session, the title of a dharani, ‘最勝無垢清淨光明大根牟陀羅尼’, is transcribed. After transcribing six dharanis once, one or two blank lines are left for division before transcribing the next ones. There is space between Chinese characters to distinguish a dharani from another within a session. With these characteristics, we can see one of the concrete ways to produce mugujeonggwang dharani for enshrinement used during unified Silla. Hwaeomsa dharani was transcribed not for reciting but purely for enshrinement. Meanwhile ‘卜’ was used for deletion marks. This is the earliest example of using ‘卜’ for a deletion mark in Korea. In addition that, marks for reversal or repetition are also found. As in other Silla scriptures, ‘塞’, the new characters of Wu Zetian, was also used.

Key words: West Pagoda of Hwaeomsa, Mugujeonggwang dharani, Mugujeonggyeong, patterns of transcription, the title of a dharani, deletion mark, the New Characters of Wu Zetian

1. 서론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하 『무구정경』)은 彌陀山과 法藏에 의해 天后末年(704)에 漢譯되어, 漢譯 직후 통일신라로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김성수 1999: 37-57, 朴相國 1999 등). 경주 九黃里 삼층석탑(국보 37호)에서 발견된 사리함 뚜껑 안쪽의 명문에 “神龍二年丙午(706)五月卅日 今主大王 佛舍利四 舍金彌陀像六寸一軀 無垢淨光大陀羅尼經一卷 安置石塔第二層”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무구정경』은 통일신라로 전래된 이후 법사리로서 여러 차례 납탈되었는데, 『무구정경』이 인쇄되거나 필사된 지류 유물이 현전하지 않더라도 납탈 기록이 다양한 방식으로 남아 있어 이를 짐작할 수 있다(김성수 1999: 12-14, 周旻美 2004). 현전하는 많지 않은 통일신라시대 지류 유물 중, 『무구정경』 관련 자료가 일군을 이루고 있는 것은(鄭在永 2014)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자연스레 설명된다.

현전하는 통일신라시대 『무구정경』 관련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알려져 있다. 첫째,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국보 39호) 출토 무구정광다라니 지편, 둘째, 불국사 석가탑 출토 『무구정경』 목판 인쇄물(국보 126호), 셋째,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무구정경』 사경,¹⁾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화엄사 서오층석탑 출토 무구정광다라니 지편(보물 1348호, 이하 ‘화엄사 다라니’로 약칭)이 그것이다.²⁾

이 중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화엄사 다라니는 통일신라시대의 『무구정경』 관련 자료 중 가장 많은 양의 다라니 필사본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 동일한 다라니를 여러 차례 거듭 필사한 것이 남아 있어, 통일신라시대에 법사리로서 무구정광다라니가 사경되는 방식의 일면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기

1) 한국일보의 기사(1998년 6월 14일자 제1면)에 따르면 8세기 초에 제작된 사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자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2) 黃壽永(1963)에 따르면 奉化 西洞里 東三層石塔에서 출토된 99기의 소탑 중 일부에는 목서 지편이 삽입된 채로 남아 있었는데,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原狀으로 展開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역시 무구정광다라니를 필사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때문이다. 또한 이 자료는 통일신라 시대에 유통된 무구정광다라니 전체 모습을 재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서, 불국사 석가탑 출토 『무구정경』 등 동시대에 형성된 다라니류 유물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료이다. 그러나 화엄사 다라니는 그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의 주목을 받지 않아, 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화엄사 다라니를 유물보존학적 관점에서 다룬 朴智善(1997)이 유일한데, 여기에서도 다라니의 필사 내용과 필사 양식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화엄사 다라니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필사되어 있는지 등 이 자료의 성격 전반을 살펴 그 자료적 가치를 드러내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화엄사 다라니 지편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관독하여 각 지편별로 어떤 다라니가 필사되어 있는지 필사 내용을 정리하고, 암송 표시, 다라니명, 空行 및 隔字의 사용 양상, 교정 부호, 축천무후자 사용 등 필사 양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화엄사 다라니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부분적이거나 동시기 다른 『무구정경』 자료와의 관계를 살펴³⁾ 통일신라 시대에 납탑용으로 사용된 무구정광다라니의 일반적인 양식 또한 추정해 볼 수 있다.

2. 자료 조사 및 판독

朴智善(1997)에 따르면 화엄사 다라니는 1995년 8월 18일에 석탑 보수를 위한 해체 공사를 실시하면서 발견되었다. 서오층석탑의 일층 탑신부 상면의 원형흙에 사리장엄구가 안치되어 있었으며 그 옆 서측의 장방형 흙(33cm×10cm)에 지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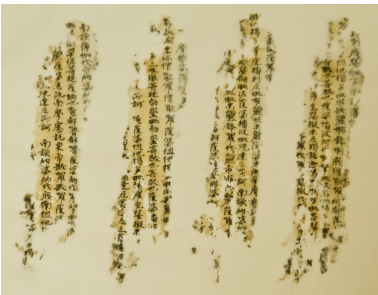
3)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살펴는 또 다른 연구 목적은, 화엄사 다라니의 필사 저본을 재구하고 재구본을 다른 자료와 교감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룰 예정이다.

화엄사 서오층석탑 발견 「무구정광다라니」의 서지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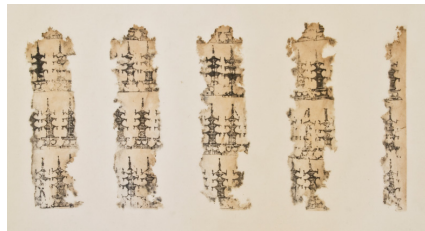


서오층석탑 지류 뭉치 출토 위치4)

이 지류 뭉치는 1995년 12월부터 1997년 4월까지 2차에 걸쳐, 문화재 연구소의 감독하(담당관: 이규식)에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보존 처리자: 박지선, 천주현, 임주희)에서 보존 처리하였다. 보존 처리 결과 搭印이 찍힌 종이 13장과 다라니가 필사된 종이 8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중심부에 탑인 4장이 놓이고 5장째부터 다라니를 필사한 종이와 탑인을 찍은 종이를 번갈아 가며 놓은 후 겹쳐 만 상태로 납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필사 2] 다라니가 필사된 종이



[탑 7] 탑인이 찍힌 종이

4) 오른쪽 사진은 朴智善(1997)에서 가져온 것이며, 왼쪽에 있는 화엄사 서오층석탑의 전면 사진은 권중서 선생님께서 직접 촬영하여 보내주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와 같은 화엄사 서오층석탑 출토 지류 유물 가운데 본고는 다라니가 필사된 부분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이 자료의 성격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불국사 석가탑 출토 「무구정경」이나 나원리 오층석탑 출토 무구정광다라니 등 동시대 다라니류 유물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에 기여할 기초 연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화엄사 서오층석탑에서 출토된 지류 유물은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에 의해 보존 처리되어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보존 처리된 결과물을 대상으로 하였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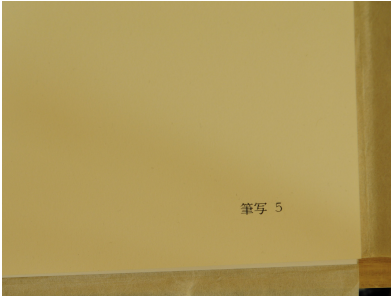
이후 화엄사 다라니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新羅 寫經에 대한 學際的 研究” 프로젝트(연구책임자: 정재영, 연구 기간: 2010. 9~2013. 8) 팀에 의해 수행되었다. 실물 조사는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조사는 2010년 12월 29일에 이루어졌다. 이때 조사에서는 유물의 보존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의 상태에서 연구가 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차 실물조사를 통해 화엄사 다라니의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국내에 현전하는 신라 사경의 하나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유물을 직접 촬영할 것을 협의하였다. 이후 한 달 후인 2011년 1월 25일에 2차 실물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실물 조사에서는 전문 사진작가를 동반하여 자료의 보존 상태 그대로를 촬영하였다. 2차 실물 조사에서 촬영한 자료로 실질적인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실물 조사를 통해, 화엄사 서오층석탑에서 출토된 지류 유물 중 다라니를 필사한 종이는 8장의 board(朴智善 1997)에 보존 처리되어 보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board의 위에 덮은 외지에는 [筆写 1], [筆写 2] 등 구분 표시가 있었다. 이후 본고에서 [필사 1], [필사 2] 등으로 지시하는 것은 이와 같이 보관 시 부여된 명칭을 따른 것이다. 다만 朴智善(1997)에서 제시한 것과 비교해 보면 [필사 2]와 [필사 3]이 서로 바뀌어 있는데, 본고는 朴智善(1997)을 따르지 않고 현재 화엄사

5) 이 자료는 현재 조각조각 떼어서 보존 처리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원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며 그와 관련된 약간의 추정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존 처리 되지 않았다면 원 자료를 접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존 처리 되어 남아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에 붙어 있는 명칭을 따른다.



[筆寫 5] 외지



[筆寫 5]에 복원된 지편

화엄사 다라니 원본은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하나의 board에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10개의 지편으로 나뉘어 복원되어 있다. 본고에서 여러 지편을 나열할 때는 편의상 [필사 1]의 가장 우측에 놓인 첫 번째 지편을 [필사 1-1], [필사 1]의 우측에서 두 번째에 놓인 지편을 [필사 1-2]와 같이 표시한다. 즉 “필사 1”은 복원판의 번호, 가운데줄(-) 뒤의 “1”은 하나의 board에 배접된 지편의 번호인 셈이다.

이후 2012년 6월 7일에 마지막 실물 조사가 진행되었다. 3차 실물조사에서는 촬영한 유물 사진을 바탕으로 작업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한편,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의 연구원을 동반하여 화엄사 다라니의 종이를 조사하였다. 이는 신라 사경의 판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 수집의 일환이었다.

실물 조사 때 촬영한 사진을 대상으로 화엄사 다라니의 판독 및 교감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역시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앞선 두 차례는 프로젝트 팀 공동 작업으로 수행되었는데, 8장으로 복원된 다라니 필사 자료를 8명의 연구원이 나누어 맡았다.⁶⁾ 각 연구원은 각자 맡은 지편을 판독하고 그 결과를 8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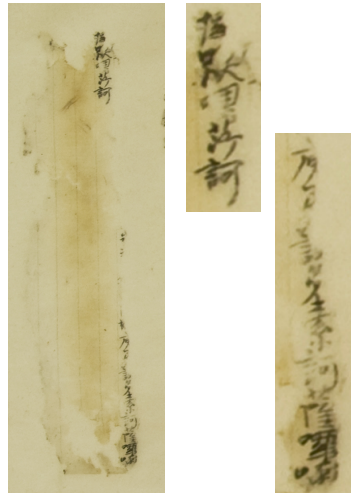
6) 1차 작업 시, [필사 1]과 [필사 7]은 박부자(성신여대), [필사 2]는 김성주(동국대), [필사 3]은 우석 스님(동국대), [필사 4]는 하정수(동국대), [필사 5]는 김지오(동국대), [필사 6]은 박대범(동국대), [필사 8]은 정경재(고려대)가 맡아 진행하였다. 2차 작업 시, [필사 2]는

자료와 교감하였다.⁷⁾ 마지막으로 필자에 의해 전체 자료를 재확인하고 재판독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판독 작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다라니 지편별로 몇몇 글자를 판독하여 『무구정경』에 속한 여섯 개의 다라니 중 어떤 다라니에 대응하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1) 가. 1행: {庾多設多}索訶薩囉喃
- 2행: {擢跋哩}莎訶
- <화엄사 다라니 필사1-8:1~2행>⁸⁾
- 나. 南謨納婆納伐底喃怛他揭多(一)彌伽捺地婆盧迦(二)俱胝那庾多設多索訶薩囉喃(三)唵(引四)普怖哩(五)折里呬(六)折哩慕(上)哩忽哩(七)社邏跋(上)哩莎(引)訶(八)
- <재조: 6번 六波羅蜜陀羅尼>

오른쪽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화엄사 다라니 [필사 1-8]에서 글자가 남아 있는 부분은 1~2행뿐이다. 두 행에 남아 있는 글자를 판독하면 (1가)와 같은데, (1가)가 어떤 다라니를 필사한 것인지 밝히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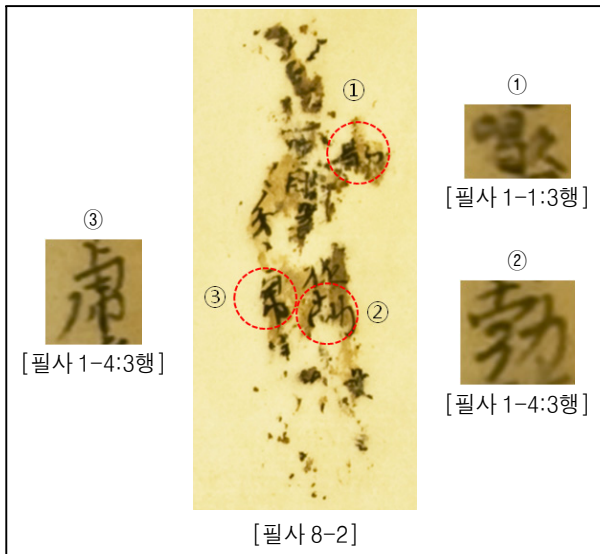
전체 부분 확대
[필사 1-8]

조운성(성신여대), [필사 7]은 정경제가 맞았으며 그 외의 경우는 1차 작업자가 본인의 작업을 재검토하였다.

- 7) 통일신라 시대 자료인 ① 불국사 석가탑 출토 『무구정경』, 동시기 일본 자료인 ② 백만탑 다라니, 제작 시기가 불명확하지만 사경 계통의 전승 양상을 살필 수 있는 4종의 둔황 사경 ③ 北7379, ④ 北7384, ⑤ P.3916, ⑥ S.1634, 대장경 계통의 전승 양상을 살필 수 있는 ⑦ 金版大藏經, ⑧ 再調大藏經이 그것이다. 추후 필자가 별도로 나원리 오층석탑 출토 무구정경다라니 지편을 추가로 교감에 반영하였으므로 총 9종의 자료를 대상으로 교감을 진행한 셈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여러 자료와의 교감 결과를 다루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으므로,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필사 내용과 필사 양식을 비교하는 수준으로 언급하게 될 것이다.
- 8) 화엄사 다라니 예문 중 { }는 자형의 일부가 훼손된 글자를, ()는 글자 전체가 훼손된 것을 표시한 것이다. 이후 동일하다.

해 재조대장경과 대조하였다. 그 결과 (1나)에 제시한 것처럼 6번 다라니 六波羅蜜陀羅尼에 나오는 ‘庚多設多索訶薩囉喃, 跋哩莎訶’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화엄사 다라니 [필사 1-8]은 6번 다라니를 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편이 많이 훼손되어 어떤 다라니를 필사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글자의 일부 획을 다른 지편의 글자와 비교하여 판독한다. 예를 들어, [필사 8]은 가장 바깥쪽에 위치했던 까닭에 훼손 정도가 심하며, 그 중 두 번째 지편([필사 8-2])은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온전한 글자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자료만으로는 어떤 다라니를 필사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글자의 잔존 부분을 다른 지편과 비교하여 유사한 자형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판독하였다.



우선 ①은 글자의 중간 부분만 남고 아랫부분과 왼쪽 부분이 훼손되었다. 여러 글자를 비교해 본 결과 [필사 1-1:3행]에 있는 ‘歐’의 ‘曷’의 일부와 ‘欠’의 윗부분이

①과 자형이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또 ②는 우변의 ‘力’은 분명히 보이지만 좌변의 글자가 분명치 않다. 역시 다른 다라니 지편에서 우변에 ‘力’이 있는 글자들과 비교해 본 결과 [필사 1-4:3행]에 있는 ‘勃’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③은 아래 ‘巾’은 분명히 보이지만 위쪽의 자형이 분명치 않다. 다른 다라니 지편에서 아래 ‘巾’이 들어간 글자들과 비교해 본 결과, [필사 1-4:3행]의 ‘席’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필사 8-2]에서 판독할 수 있는 글자는 ‘嘸, 勃, 席’ 세 개이며 이 세 글자가 들어가 있는 다라니를 재조대장경에서 확인하였다.

(2) 僧嘸(呵葛反)囉僧嘸羅(九)…(중략)…勃地(亭也反下同)毗勃地…(중략)…
虎嚙虎嚙莎(引)訶(引二十) <재조: 1번 根本陀羅尼>

세 글자 중 ‘勃’은 첫 번째 다라니인 根本陀羅尼의 ‘勃地毗勃地’와 다섯 번째 다라니인 大功德聚陀羅尼의 ‘勃陁阿地瑟侘那’의 두 곳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嘸, 席’ 두 글자가 함께 들어 있는 다라니는 1번 根本陀羅尼뿐이다. 따라서 [필사 8-2]는 『무구정경』의 첫 번째 다라니, 즉 根本陀羅니를 필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지편에 어떤 다라니가 필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재조대장경을 참고하여 각 지편의 글자를 하나씩 모두 판독해 나갔다. 또한 훼손된 부분은 별도의 표시로 구분해 두어, 훼손 이전의 모습도 재구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3. 화엄사 무구정광다라니의 필사 내용

화엄사 무구정광다라니 지편에 남겨진 글자를 모두 판독한 결과, 각 지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염사 서오층석탑 발견 「무구정광다라니」의 서지적 연구

<표 1> 지편별 다라니 구성

보관 번호	지편 번호	행수	필사된 다라니 ⁹⁾	경선	필사횟수 ¹⁰⁾
[필사 1]	1	1~5행	1, 2, 3번	有	4회 (1, 3, 5번)
	2	1~6행	5, 6, 1번		
	3	1~6행	3, 4, 5번		
	4	1~5행	1, 2, 3번		
	5	1~5행	4, 5, 6번		
	6	1~6행	1번		
	7	1~5행	2, 3, 4, 5번		
	8	1~6행	6번		
	9	1~5행	-		
[필사 2]	1	1~6행	1, 2, (3)번	無	2회 (1, 2, 4, 5번)
	2	1~6행	4, 5, (6)번		
	3	1~5행	1, 2번		
	4	1~5행	4, 5번		
[필사 3]	1	1~5행	1, 2, 3, 4번	有	6회 ¹¹⁾ (5번)
	2	1~6행	5, 6, 1번		
	3	1~6행	2, 3, 4번		
	4	1~5행	5번		
	5	1~5행	1, 2번		
	6	1~5행	4, 5번		
	7	1~6행	(5), 6, 1번		
	8	1~5행	1, 2번		
	9	1~5행	4, 5번		
	10	1~4행	5, 6번		

- 9) 괄호 안에 숫자를 넣은 것은 해당 다라니가 필사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미판독 글자가 있는 경우이다.
- 10) 필사 횟수에서 소괄호 () 안에 제시한 것은 필사 자료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다라니 번호이다.
- 11) [필사 3]은 각 지편에 적힌 다라니의 순서가 정연하지 않아, 복원 시 지편의 위치가 정확하게 판단된 것인지, 정확히 몇 번 필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1번, 5번 다라니가 다섯 번 필사된 것이 확인되며, [필사 3-7]에서는 6번 다라니 앞에 판독이 어려운 자획 일부가 확인되므로 5번 다라니가 최소한 6회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2) 훼손이 심하여 모든 지편에서 경선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필사 8-1], [필사 8-4], [필사 8-5], [필사 8-6]에는 경선이 보인다.
- 13) [필사 8]은 훼손이 심하여 정확히 몇 번 필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1번, 5번 다라니가 세 번 필사된 것이 확인되므로 최소한 3회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관 번호	지편 번호	행수	필사된 다라니 ⁹⁾	경선	필사횟수 ¹⁰⁾
[필사 4]	1	1~4행	1번	無	5회 (1, 3, 4, 6번)
	2	1~5행	6번		
	3	1~5행	3, 4번		
	4	1~5행	6, 1번		
	5	1~5행	(2), 3, 4번		
	6	1~4행	6, 1번		
	7	1~4행	2, 3, 4번		
	8	1~4행	(6), 1번		
	9	1~5행	3, 4, 5번		
[필사 5]	1	1~2행	1번	無	2회 (1, 3, 4번)
	2	1~5행	3, 4번		
	3	1~4행	1번		
	4	1~4행	3, 4번		
	5	1~3행	6번		
[필사 6]	1	1~5행	1, 2번	有	3회 (2, 5, 6번)
	2	1~5행	4, 5, 6번		
	3	1~5행	1, 2번		
	4	1~4행	5, 6번		
	5	1~5행	2, 3번		
	6	1~4행	5, 6번		
[필사 7]	1	1~5행	1번	有	3회 (1번)
	2	1~5행	5, 6, (1)번		
	3	1~4행	3, 4번		
	4	1~4행	1번		
	5	1~4행	4, 5번		
[필사 8]	1	1~3행	5, 6, 1번	有 ¹²⁾	3회 ¹³⁾ (1, 5번)
	2	1~3행	1번		
	3	1~3행	4번		
	4	1~3행	5번		
	5	1~3행	5, 6번		
	6	1~3행	1번		
	7	1~3행	2, 3번		

<표 1>을 통해, 화엄사 서오층석탑에서 출토된 지류 문치는 『무구정경』의 경문은 제하고 그에 포함되어 있는 여섯 개의 다라니만을 수차례 반복하여 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시 통일신라 시대에 필사되어 남탑된 무구정광다라니 자료인 나원리 다라니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형성된 목관 인쇄물 백만담

다라니에서도 확인되는 특성이다. 또한 화엄사 다라니는 여섯 개의 다라니를 한 세트로 하여 순서대로 필사하고 이를 반복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다라니를 연달아 여러 차례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원리 오층석탑 출토 다라니와 필사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나원리 다라니의 경우, 사리함의 남쪽 내벽에서 수습된 지편에는 4번 다라니가 1회, 서쪽 내벽에서 수습된 지편에는 5번 다라니가 연달아 2회 필사되어 있다(金聖洙 1997: 6-9, 朴相國 1998). 국립문화재연구소(1998)에 실려 있는 이미지를 관독해 보면, 남쪽 내벽에서 수습된 또 다른 지편에도 4번 다라니가 필사되어 있어 4번 다라니 역시 연달아 2회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래에 이미지로 제시한 나원리 다라니 지편을 관독한 것이 (3가)이다.¹⁴⁾ 여기에서 1~3행은 5번 大功德聚陀羅尼에 대응하는데, 4~6행 역시 大功德聚陀羅尼에 대응하며 2행과 6행의 ‘莎訶薩婆’는 해당 다라니의 동일 부분을 필사한 것이다. 즉 하나의 지편 안에 大功德聚陀羅尼를 연달아 두 번 필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가. 1행: {那}
 2행: {飯}尼莎{訶薩}婆{提}
 3행: {莎}(?)
 4행: {揭}□{俱}底{喃}
 5행: {伐}麗{薩}
 6행: {莎訶薩婆}



나원리 다라니 西1 이미지

- 나. 南謨納婆納伐底喃怛他揭多俱底
 喃(一)彌伽捺地婆盧迦三摩喃
 (二)唵(引三)毗補麗毗末麗(四)
 鉢囉伐麗(五)市那(上)伐麗(六)
 薩囉薩囉(七)薩婆怛他揭多馱都
 揭鞞(八)薩底(丁耶反)地瑟恥帝
 薩(引)訶(九)阿(引)耶(夷我反下
 同)咄都飯尼莎(引)訶(十)薩婆提婆
 那婆阿耶彌(十一)勃陁阿地瑟佉
 那(上十二)三摩也莎(引)訶(十三) <재조: 5번 大功德聚陀羅尼>

14) 이는 金聖洙(1997: 9)의 관독을 참고하여 일부분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통일신라 시대에 납담용 무구정광다라니를 제작할 때, 나원리 다라니처럼 동일한 다라니를 여러 차례 연속해서 필사하는 방식과 화엄사 다라니처럼 여섯 개의 다라니를 세트로 반복하여 필사하는 방식이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화엄사 다라니는 경문은 제하고 다라니만 필사하였는데, 다라니 안에서도 다라니의 암송을 위한 표시들, 즉 ‘一, 二, 三’ 등의 숫자와 反切, ‘上聲, 去聲, 引(聲)’ 등 주음 요소가 필사되지 않았다. 재조대장경은 물론 석가탑 『무구정경』과 백담담 다라니에는 이러한 표시들이 다라니 중간에 새겨져 있다. 大功德聚陀羅尼를 필사한 화엄사 다라니 [필사 1-5]와(4) 참고) 재조대장경의 동일 다라니를 비교하면(3나) 참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4) (南謨納){婆納伐底}喃怛他揭多俱胝喃彌伽捺婆盧迦三摩喃唵毗補麗
毗末麗鉢囉(伐麗市那)伐(麗薩囉薩囉薩婆怛他揭多馱都揭){鞞薩}底峇
瑟耽帝莎訶阿耶咄都飲居莎訶薩婆提婆那婆訶耶彌(勃陀)阿峇瑟佉(那
三摩也莎訶) <화엄사 다라니 필사1-5: 3~5행>¹⁵⁾

화엄사 다라니의 이러한 특징은 나원리 다라니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3가)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행과 6행에 남아 있는 ‘莎’와 ‘訶’ 사이는 ‘引’이, ‘莎訶’와 ‘薩婆’ 사이는 ‘十’이 들어갈 자리인데 아무런 글자가 없다. 5행의 ‘伐麗’와 ‘薩’ 사이에도 ‘六’이 기대되나 역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화엄사 다라니와 나원리 다라니가 암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납담을 위해 필사된 것임을 말해 준다.¹⁶⁾

<표 1>을 통해 화엄사 다라니가 최소 몇 회나 필사되었는지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필사 1]에서는 1번과 3번, 5번 다라니가 가장 많이 확인되는데 각각 네 번 반복되므로 적어도 무구정광다라니가 최소 4회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지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결과, [필사 2]는 2회, [필사 3]은 6회,

15) 화엄사 다라니의 일부 글자가 재조대장경과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에서 다룰 예정이다.

16) 이러한 주음 표시들은 『무구정경』을 漢譯하는 당시에 기입되었을 것이므로(金聖洙 2000b) 화엄사 다라니와 나원리 다라니가 제작된 이후에 추가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필사 5]는 2회, [필사 6]~[필사 8]은 각각 3회 반복되었다. 다만, [필사 4]는 1번, 3번, 4번, 6번 다라니가 각각 네 번 확인되므로 단순히 확인되는 횟수만 고려한다면 최소 4회 필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6번 다라니를 연속 필사했고 이것이 순서대로 복원되었다고 가정할 때, [1, 6] / [3, 4, 6] / [1, (2), 3, 4, 6] / [1, 2, 3, 4, (6)] / [1, 3, 4, 5]와 같이 5회 필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필사 4]가 5회 필사된 것으로 파악하였다.¹⁷⁾ [필사 3]과 [필사 8]을 제하면 대체로 남아 있는 다라니의 배열 순서가 정연하며, [필사 4]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다라니의 수와 본고에서 파악한 필사 횟수가 일치하므로 본고에서 필사 횟수를 파악한 방식에 큰 오차는 없으리라 본다.

이와 같이 [필사 1]~[필사 8]의 최소 필사 횟수를 추정해본 결과, 전체 지편을 통틀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은 1번 다라니로, 25회¹⁸⁾ 필사된 것이 확인되었고, 화염사 다라니에는 무구정광다라니가 최소 28회 필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朴智善(1997)에서는 [필사 2](본고의 [필사 3])에 4회, [필사 8]에 2회 필사된 것으로 보아 최소 25회 필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¹⁹⁾ 그러나 본고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필사 3]은 5번 다라니가 여섯 번 확인되므로 최소 6회, [필사 8]은 1, 5번 다라니가 세 번 확인되므로 최소 3회 필사되었다. 이 자료의 훼손 상태를 고려하면 그보다 더 많이 필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무구정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77회 혹은 99회 필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7) 朴智善(1997)에서는 필사 횟수의 추정 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본고에서와 같이 [필사 4]를 5회 필사된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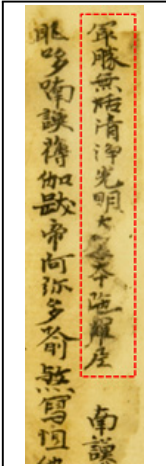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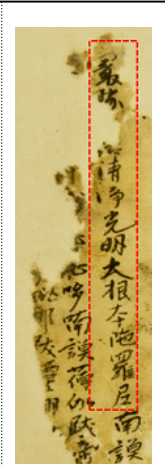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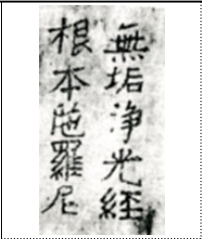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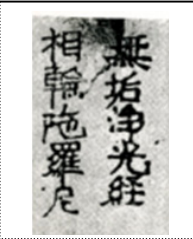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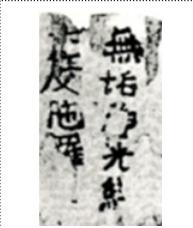
18) [필사 7-2] 마지막 행은 글자의 잔존 부분이 많지 않아 1번 다라니를 필사한 것인지 6번 다라니를 필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글자수를 고려하면 1번 다라니일 가능성이 있어 <표 1>에 제시하되, 6번 다라니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1)”이라고 표시하였던 것이다. 만약 이것이 6번 다라니라면 1번 다라니는 24회 필사된 것이 확인되는 셈이다.

19) 朴智善(1997)에서는 [필사 8]에 대해서는 ‘2번(?)’이라고 명시하여 수치가 부정확함을 표시하였다. [필사 8]의 훼손 정도가 심하여 판독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 화엄사 무구정광다라니의 필사 양식

4.1 다라니명

다라니만 반복적으로 필사한 화엄사 다라니는 여섯 개의 다라니를 한 세트로 하여 필사하기 전에, 그 앞에 ‘最勝無垢清淨光明大根牟陀羅尼’라는 다라니명을 명기하고 있다.

			
[필사 4-1]	[필사 5-3]	 	
화엄사 다라니		백만탑 다라니	

다라니의 이름을 명시한 것은 일본 백만탑 다라니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다만 화엄사 다라니는 첫 번째 다라니 앞에만 쓰인 것과는 달리 백만탑 다라니는 현전하는 네 가지 다라니 모두에 각각의 이름이 붙어 있다. 이 두 자료에서 다라니명을 명시한 것은, 이들이 석가탑 『무구정경』이나 재조대장경과는 달리 『무구정경』의 경문은 제외하고 경 안에 포함된 다라니만 필사하거나 각인한 것이어서 다라니의 이름이나 시작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²⁰⁾ 특히

화엄사 다라니는 모든 다라니의 이름을 적은 것이 아니라 1번 다라니명만 적고 있어 매회의 시작 부분을 명시함으로써 空行과 함께 회차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화엄사 다라니에서 1번 다라니의 시작 부분이 남아 있어 다라니명의 유무를 알 수 있는 곳은 모두 12곳이다.²¹⁾ 훼손의 정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 12곳 모두 다라니명을 적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다라니명을 가장 앞에 적고 1번 다라니부터 6번 다라니까지 필사하는 것이 매우 규칙적인 필사 원칙이었음을 알 수 있다.²²⁾

4.2 空行

화엄사 다라니는 여섯 개의 다라니를 한 회 필사한 후에 한두 행을 비워 두고 다시 다라니를 필사하고 있다. 즉 1~6번 다라니를 한 번 필사한 후 空行을 두어 구별하고 다시 1~6번 다라니를 필사한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필사 1-2], [필사 1-6], [필사 3-7], [필사 4-2], [필사 4-4], [필사 4-6], [필사 4-8], [필사 5-3], [필사 7-4]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면 [필사 1-8]과 [필사 5-5]에서도 6번 다라니 다음에 공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20) 나원리 다라니는 작은 지편만 남아 있어 다라니명이 필사되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 자료 역시 경문은 제하고 다라니만 필사하였으므로 다라니명이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1) 구체적으로는 [필사 1-1], [필사 3-2], [필사 3-7], [필사 4-1], [필사 4-4], [필사 4-6], [필사 4-8], [필사 5-1], [필사 5-3], [필사 7-1], [필사 7-4], [필사 8-1]에 다라니명의 일부가 남아 있다.

22) 제초대장경에 포함된 「무구정경」에는 ‘最勝無垢清淨光明大根牟陀羅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제초대장경에서는 6종의 다라니를 ‘最勝無垢清淨光明大壇場法’으로, 1번 다라니를 ‘根牟陀羅尼呪’로 칭하고 있다. 필자가 cbeta를 검색해 보니 行琳이 898년에 당시까지 佛家에서 유통되었던 다라니를 김성·편찬한 책인 『釋教最上乘秘密藏陀羅尼集』에 ‘最勝無垢清淨光明根本陀羅尼’와 같은 이름이 보인다. 또 鎌倉時代 필사본으로 일본 高山寺에 소장되어 있는 『入唐新求聖教目錄』에도 화엄사 다라니의 다라니명과 유사한 ‘唐梵兩字最勝無垢清淨光明大陀羅尼一卷’의 목록이 보인다. 이들 원본을 확인하여 대조한다면 다라니명을 통해 화엄사 다라니의 계통 및 필사 저본을 밝히는 데에 접근할 가능성도 있을 듯하다.

만, 6번 다라니를 쓰고 종이가 끝나면서 공행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앞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표 2> 空行

보관 번호	지편 번호	필사된 다라니	공행
[필사 1] ²³⁾	2	5, 6, 1번 다라니	제4행 공백(6번 뒤)
	6	1번 다라니	제1~3행 공백(1번 앞)
	8	6번 다라니	제3~6행 공백(6번 뒤)
[필사 3]	2	5, 6, 1번 다라니	공행 없음
	4	5번 다라니	제4~5행 공백(5번 뒤)
	7	(5), 6, 1번 다라니	제4~5행 공백(6번 뒤)
[필사 4]	2	6번 다라니	제3~5행 공백 ²⁴⁾ (6번 뒤)
	4	6, 1번 다라니	제3행 공백(6번 뒤)
	6	6, 1번 다라니	제2, 3행 공백 ²⁵⁾ (6번 뒤)
	8	(6), 1번 다라니	제2행 공백(1번 앞)
[필사 5]	2	3, 4번 다라니	제3행 공백 ²⁶⁾ (3번 뒤)
	3	1번 다라니	제1행 공백(1번 앞)
	5	6번 다라니	제3행 공백(6번 뒤)
[필사 7]	2	5, 6, (1)번 다라니	공행없음 ²⁷⁾
	4	1번 다라니	제1행 공백(1번 앞)
[필사 8]	1	5, 6, 1번 다라니	공행 없음

23) [필사 1-1]에 필사된 1번 다라니 앞에 제1행이 공백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단부에 묵흔이 조금 보이고 종이의 시작 부분이어서 공행이 아니라 문서의 이름이 적혔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표 2>의 공행에서는 제외하였다.

24) 경선이 없어 몇 행이 공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대략 3행 정도의 공백이 있다.

25) 경선이 없어 몇 행이 공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대략 2행 정도의 공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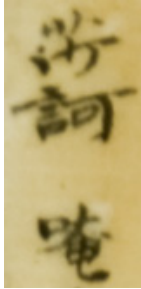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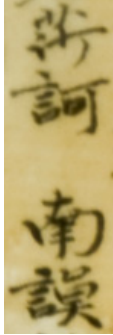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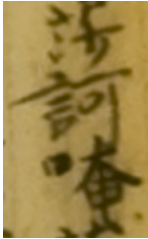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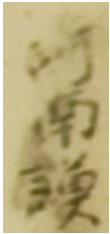
26) 공백의 너비가 한 행보다는 조금 좁다.

27)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필사 7-2] 마지막 행의 글자가 잔존 부분이 많지 않아 1번 다라니를 필사한 것인지 6번 다라니를 필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만약, [필사 7-2]의 마지막 행에 있는 글자가 1번 다라니라면 공행이 없는 예에 속하고 6번 다라니라면 공행을 판단할 수 없는 예에 속한다. 본고에서는 글자수를 고려하면 1번 다라니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었으므로 <표 2>에 제시하고 공행이 없는 예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추후에라도 6번 다라니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면 이는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행이 기대되는 [필사 3-2], [필사 7-2], [필사 8-1]에는 아무런 공백이 없으며, [필사 3-4]는 5번 다라니 뒤에서, [필사 5-2]는 3번 다라니 뒤에서 공행이 나타난다. 그러나 6번 다라니와 1번 다라니 사이에 공행을 둔 예가 대부분이므로 뒤의 사례들은 필사 과정에서 발생한 예외적인 실수로 생각된다.

4.3 隔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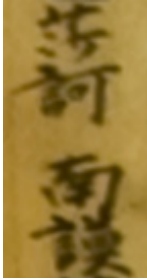

화엄사 다라니에서는 다라니와 다라니를 구별할 때 각 다라니 사이에 한 글자 정도의 공백을 두어 구분하는 경향도 보인다. 그 실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이미지				
지편 번호	[필사 2-3]	[필사 2-4]	[필사 1-4]	[필사 1-7]
다라니 번호	1~2번	4~5번	1~2번	4~5번
공백 여부	한 글자 공백		공백 없음	

[필사 2-3]에는 1번 다라니와 2번 다라니가 함께 필사되어 있는데, 1번 다라니와 2번 다라니 사이에 한 글자의 공백을 두어 별도의 다라니임을 구별해 놓았다. [필사 2-4]에는 4번과 5번 다라니가 함께 필사되어 있다. [필사 2-3]과 마찬가지로 4번 다라니가 끝나고 5번 다라니가 시작되는 지점에 한 글자의 공백을 두어 구별

하고 있다. 반면 [필사 1-4]에서는 [필사 2-3]과 마찬가지로 1번과 2번 다라니가 함께 필사되어 있으나 1번과 2번 다라니 사이의 공백이 다른 자간과 다르지 않아 공백을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필사 1-7]도 [필사 2-4]와 동일하게 4번과 5번 다라니가 함께 필사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의 자간과 특별히 차이가 없다. 즉 동일한 다라니의 필사라도 다라니 간 구별을 위한 隔字를 하기도 하고 아무 구별 없이 필사하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간혹 隔字를 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분명치 않은 경우도 있다. 다음의 예가 그러한 경우이다.

이미지		
지편 번호	[필사 1-2]	[필사 4-3]
다라니 번호	5~6번	3~4번
공백 여부	반 글자 공백	

[필사 1-2]에는 5번과 6번 다라니가 함께 필사되어 있다. 5번 다라니의 마지막인 ‘莎’와 ‘訶’ 사이, 6번 다라니의 처음인 ‘南’과 ‘謨’ 사이의 자간과 비교한다면, 5번과 6번 다라니 사이의 자간은 隔字로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다른 지편에서 확인되는 다라니 간 공백보다 좁고 동일한 지편 [필사 1-2]에 필사된 글자 하나의 크기보다도 작다.

[필사 4-3]도 마찬가지이다. [필사 4-3]은 3번과 4번 다라니가 함께 필사된 것인데 3번 다라니의 마지막인 ‘莎’와 ‘訶’ 사이, 4번 다라니의 처음인 ‘南’과 ‘謨’ 사이의 자간과 비교할 때 3번과 4번 다라니 사이의 공백은 隔字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 지편에 쓰인 다른 글자의 크기보다 작고 다른 지편에서 확인되는 다라니 간 공백보다 좁다. 앞서 [필사 2-3], [필사 2-4]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다라니 간 공백이 한 글자 정도의 크기였다면 [필사 1-2], [필사 4-3]에서 확인되는 다라니 간 공백은 반 글자 정도의 크기로 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동일 지편에서 확인되는 다른 글자 간 간격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므로 이 또한 다라니 간 구별을 위한 隔字로 판단한다.

이와 같이 앞 다라니의 마지막 글자와 이어지는 다라니의 첫 글자가 훼손되지 않고 남아 있는 예는 총 23번 확인되는데, 이 중 13번의 예에서 隔字가 나타나며 10번의 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隔字 사용이 확인되는 예가 반을 조금 넘는 정도이므로 이는 엄격한 필사 원칙이었다고 하기 어렵다.

<표 3> 다라니 간 隔字 사용 양상

	출현 횟수	隔字 횟수	隔字 사용 지편	隔字 미사용 지편
1번과 2번 사이	6회	2회	[2-3], [6-1]	[1-1], [1-4], [3-1], [3-8]
2번과 3번 사이	3회	0회	--	[1-7], [3-1], [3-3]
3번과 4번 사이	5회	3회	[3-1], [4-3], [4-5]	[4-9], [5-4]
4번과 5번 사이	5회	4회	[2-2], [2-4], [3-9], [6-2]	[1-7]
5번과 6번 사이	4회	4회	[1-2], [3-2], [6-4], [6-6]	--
합계	23회	13회		

지편별로도 다라니 간 隔字 사용 양상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라니와 다라니 사이를 隔字를 사용하여 구별하는 것이 엄격히 지켜졌다고 보기 어려운데 유독 매우 엄격히 지킨 지편이 있다. 지편별 隔字 사용 양상을 보이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편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다라니와 다라니 사이에 隔字를 둔 경우와 두지 않은 경우가 함께 나타난다. 그러나 [필사 2]에서는 앞 다라니의 마지막 글자와 이어지는 다라니의 첫 글자가 훼손되지 않고 남아 있는 예가 총 3회인데 모두 隔字를 두어 구분하였다. [필사 6]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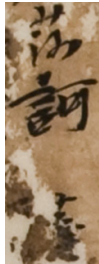

앞 다라니의 마지막 글자와 이어지는 다라니의 첫 글자가 훼손되지 않고 남아 있는 예가 총 4회인데 모두 隔字를 두어 구분하였다. 왜 이들 지편에서만 이와 같이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朴智善(1997)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다라니의 필사자가 여러 사람이었다면, 필사자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4> 지편별 隔字 사용 양상

	출현 횟수	隔字 횟수	隔字 사용 지편	隔字 미사용 지편
[필사1]	5회	1회	[1-2]	[1-1], [1-4], [1-7](2~3번, 4~5번)
[필사2]	3회	3회	[2-2], [2-3], [2-4]	--
[필사3]	7회	3회	[3-1](3~4번), [3-2], [3-9]	[3-1](1~2번, 2~3번), [3-3], [3-8]
[필사4]	3회	2회	[4-3], [4-5]	[4-9]
[필사5]	1회	0회	--	[5-4]
[필사6]	4회	4회	[6-1], [6-2], [6-4], [6-6]	--
[필사7]	0회	0회	--	--
[필사8]	0회	0회	--	--
합계	23회	13회		

특히 [필사 6]은 필사자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사례가 있다. 화엄사 다라니에서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다라니 안에서도 글자 간 공백을 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다라니 중간에 나오는 ‘莎訶’ 뒤에서만 나타난다. 다음은 그러한 사례 전체의 이미지를 제시한 것이다.²⁸⁾ 이는 여섯 개의 다라니가 모두 ‘莎訶’로 끝나는 데에서 발생한 필사 오류로 생각되는데, 그 예가 모두 [필사 6]에서만 확인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필사 6]의 필사자가 다라니의 마지막 ‘莎訶’ 뒤에 隔字를 두려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데에서 발생한 필사 오류로 생각된다.

28) 이러한 예는 [필사 6-4], [필사 6-6]에 필사된 5번 다라니에서만 세 번 확인된다.

이미지			
지편 번호	[필사 6-4]	[필사 6-4]	[필사 6-6]
다라니 번호	5번 내부	5번 내부	5번 내부

또한 [필사 2]는 글자가 단정하고 필사 오류를 교정하기 위한 부호를 사용하지 않았으며(후술), 필사 과정에서 한두 글자를 누락하는 오류도 전혀 범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⁹⁾ [필사 2]의 필사자가 다라니 필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다라니 사이에 隔字를 두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필사 원칙을 더 엄격하게 준수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화염사 다라니에는 4.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1번 다라니를 시작하기 전에 다라니의 이름을 적고 있는데, 이에 이어 다라니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한 글자 정도의 공백을 두는 사례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 역시 수의적이어서 [필사 1-1], [필사 4-1], [필사 4-4]에는 이러한 공백이 확인되나 [필사 3-2], [필사 3-7], [필사 4-8], [필사 5-1], [필사 5-3], [필사 7-1], [필사 7-4]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핀 화염사 다라니의 필사 내용과 필사 양식을 바탕으로, 필사 원칙을 준수한 상태의 화염사 다라니를 재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구정경」 안에는 다라니를 77회 혹은 99회 필사하라는 등의 다라니작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다라니를 한번에 필사할 때, 다라니의 필사 순서와 다라니 간 구분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다. 통일신라 시대 우리의 선조들은 1번~6번 다라니를 순서대로 필사하며, 한 회 필사 후 공행을 두고, 각 다라니 사이에는

29) 필사 오류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5. 부 호

화엄사 다라니에서는 다라니 필사 과정에서 몇 가지 부호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우선 필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削除符와 轉倒符를 사용했음이 확인되며 反復符도 나타난다.

먼저 원문에 잘못 사용된 글자를 삭제하는 부호인 삭제부는 신라시대의 다른 자료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³⁰⁾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756)에서는 삭제부로 ː 혹은 ː이 사용되었고, 新羅村落文書(695)에서는 ○가 삭제부로 사용되었다(이건식 2013). 그런데 화엄사 다라니에서는 이전에 확인된 신라시대의 자료에 서와 달리 삭제부가 ‘卜’으로 나타난다.³¹⁾ 그 실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5) 가. (吽){薩}婆居伐囉拏毗瑟劍毗泥薩樞[삭제부卜]播波毗(燒達)(居莎訶)
 <화엄사 다라니 필사3-6: 4~5행>
 나. (吽薩婆居伐囉拏)毗瑟劍毗泥薩婆播波毗燒達居莎訶 <화엄사 다라니 필사 2-2: 3행>
 다. 吽(引)薩婆居伐囉拏(上聲)毗瑟劍毗泥(十二)薩婆播波毗燒達居莎訶(引十三) <재조: 4번 自心印陀羅尼>
- (6) 가. (薩){婆}(怛他){揭}多阿耨瑟恥帝薩[삭제부卜]莎訶 <화엄사 다라니 필사5-4: 2행>
 나. (薩){婆怛他揭多}阿耨瑟恥帝莎{訶} <화엄사 다라니 필사4-7: 3행>
 다. 薩婆怛他揭多(九)阿地瑟恥帝莎(引)訶(十) <재조: 3번 修造佛塔陀羅尼>
- (7) 가. 鉢囉伐麗末[삭제부卜]市那伐麗 <화엄사 다라니 필사6-2: 3행>
 나. 鉢囉伐麗市那伐麗 <화엄사 다라니 필사6-4: 2행>
 다. 鉢囉伐麗(五)市那(上)伐麗(六) <재조: 5번 大功德聚陀羅尼>



30) 이진식(2013: 37)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고대와 중세 시기에 ‘●, ○, ː, ː, 卜, \’ 등 여러 종류의 삭제부호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31) 신라 사경에 나타나는 삭제부호는 鄭在永(2010)을 참조할 수 있으며, 이진식(2010)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고대 문헌 자료에 사용된 교정부호를 언급하면서 신라 시대 자료를 다루고 있다.

(5가)는 4번 自心印陀羅尼를 필사한 것으로 ‘薩’ 다음에 필사되어 있는 ‘捶’ 우측에 삭제부 ‘卜’을 표시하였다. 이는 自心印陀羅尼에서 13번째에 나오는 ‘薩婆播波毗燒達厘莎訶’를 필사한 부분인데, 재조대장경뿐 아니라 화엄사 다라니에서 自心印陀羅尼를 필사한 다른 지편인 (5나)에서도 ‘薩婆播波毗燒達厘莎訶’로 필사되어 있다. 즉 ‘婆’로 필사해야 하는 것을 ‘捶’로 잘못 필사하고 삭제 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³²⁾

(6가)는 3번 修造佛塔陀羅尼를 필사한 것으로, ‘阿塞瑟恥帝薩莎訶’로 필사하고 ‘薩’ 옆에 삭제부 ‘卜’을 표시하였다. 화엄사 다라니의 다른 지편 (6나)나 재조대장경 (6다)와 대조해 보면 (6가)는 ‘阿塞瑟恥帝莎訶’를 필사했어야 하는데 ‘帝’ 다음에 ‘薩’을 잘못 필사하여 삭제 표시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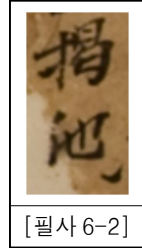
(7가)는 5번 大功德聚陀羅尼를 필사한 것으로 ‘鉢囉伐麗末市那伐麗’의 ‘末’을 필사하고 그 오른쪽에 삭제부 ‘卜’을 표시하였다. (7나)에 제시한 화엄사 다라니의 다른 지편과 (7다)의 재조대장경을 참조하면 다섯 번째 ‘鉢囉伐麗’와 여섯 번째 ‘市那伐麗’가 필사되어야 하는데 ‘鉢囉伐麗’ 다음에 ‘末’을 잘못 필사하였으므로 삭제 표시한 것이다.

鄭在永(2010)에서는 신라 사경에 나타난 교정부호를 살펴면서 신라의 점토 구결이 있는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799)에 기입된 삭제부 ‘卜’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건설(2013: 40)에서는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의 교정부호는 일본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우리나라의 고대와 중세 문헌 자료에서 삭제부 ‘卜’을 보여주는 용례는 고려시대의 문헌 자료인 호림박물관 소장 『瑜伽師地論』 권3에서 확인되는 1회가 유일하다고 하였다.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의 교정부호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엄사 다라니에서 삭제부로 ‘卜’이 사용된 예가 10회 확인되므로 통일신라 시대에 삭제부로 ‘卜’이 사용되었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삭제부 ‘卜’의 사용 시기뿐 아니라 중국의 고대 표점 부호인 ‘卜’의 유입 시기도 통일신라 시대로까지 올라갈 수

32) (5가)는 삭제만 하면 될 것이 아니라 바른 글자를 삽입해 넣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교정 표시는 없다.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화엄사 다라니에서는 글자의 순서가 잘못되어 이를 바로 잡는 顛倒符도 1회 나타난다.



- (8) 가. 薩(婆)怛揭他[전도부√](多馱都揭鞞) <화엄사 다라니 필사6-2: 3행>
 나. 薩婆怛他揭多(馱都揭鞞) <화엄사 다라니 필사 1-2: 2행>
 다. 薩婆怛他揭多馱都揭鞞(八) <재조: 5번 大功德聚陀羅尼>

(8가)는 5번 大功德聚陀羅尼를 필사한 [필사 6-2]를 보인 것이다. ‘薩婆怛揭他’를 필사하고 ‘他’의 오른쪽 아래에 ‘√’를 표시하였다. (8나)에 제시한 화엄사 다라니의 다른 지편이나 (8다)에 제시한 재조대장경과 비교해 보면, ‘薩婆怛他揭…’로 필사했어야 하는 것인데 ‘他’와 ‘揭’의 순서가 바뀌어 ‘他’에 ‘√’를 표시하여 순서를 바로 잡은 것이다. 이견식(2013: 48)에서는 전도부 ‘√’이 전도될 글자 사이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화엄사 다라니에서는 순서가 바뀐 뒤 글자의 오른쪽에 전도부 ‘√’를 표시하였다. 이는 전도부가 표시된 글자의 순서가 앞으로 수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³³⁾

한편, 동일한 글자가 연속될 때 글자 대신 서사하는 반복부호로 ‘々’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 (9) 가. 薩羅 々 播跋輪達尼 <화엄사 다라니 필사3-5: 4행>
 나. 薩羅薩羅播跋輪達尼 <화엄사 다라니 필사1-4: 4행>
 다. 薩囉薩囉播跋尾³⁴⁾輪達尼(七) <재조: 2번 相輪陀羅尼>

33) 『華嚴文義要決問答』(799)에서는 전도될 글자 사이에 전도부 ‘√’를 표시한 예도 있고 뒷글자에 표시한 예도 있다. 전자는 이견식(2013: 48~49)에서, 후자는 鄭在永(20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34) 재조대장경의 ‘尾’자가 화엄사 다라니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화엄사 다라니 내 相輪陀羅尼를 필사한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필사 오류라 할 수 없으며 필사 저본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화엄사 다라니의 필사 저본 계구와 현전 다른 다라니와의 비교는 후고에서 다를 예정이다.

- (10) 가. 跋囉々々薩婆薩捶波盧羯{居} <화엄사 다라니 필사3-9: 4행>
- 나. 跋囉跋囉薩婆薩捶波盧{羯居} <화엄사 다라니 필사1-7: 4행>
- 다. 跋囉跋囉(十)薩婆薩埵縛³⁵盧羯尼(十一) <재조: 4번 自心印陀羅尼>



(9가)는 2번 相輪陀羅尼를 필사한 것으로 ‘薩羅’가 반복되는 부분인데 글자를 반복해서 필사하지 않고 ‘々々’을 사용하여 ‘薩羅’가 반복됨을 나타내고 있다.

(10가)는 4번 自心印陀羅尼를 필사한 것인데, 여기서도 ‘跋囉’를 반복하여 필사하지 않고 ‘々々’을 사용하여 ‘跋囉’가 반복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엄사 다라니에서는 삭제부, 전도부, 반복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자료에서 사용된 부호의 전체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화엄사 다라니에 사용된 부호

종류	지편	다라니	내용
삭제부	3-1	2번	‘吽’와 ‘莎’ 사이에 ‘薩’을 잘못 필사하였다가 [삭제부]를 표시하였음.
	3-2	5번	‘也’와 ‘莎’ 사이에 ‘薩’을 잘못 필사하였다가 [삭제부]를 표시하였음.
	3-6	4번	‘薩’과 ‘播’ 사이에 ‘捶’를 잘못 필사하였다가 [삭제부]를 표시하였음.
	3-10	6번	‘喃’과 ‘唵’ 사이에 ‘南’을 잘못 필사하였다가 [삭제부]를 표시하였음.
	4-2	6번	‘跋’과 ‘哩’ 사이에 ‘囉’를 잘못 필사하였다가 [삭제부]를 표시하였음.
	5-4	3번	‘帝’와 ‘莎’ 사이에 ‘薩’을 잘못 필사하였다가 [삭제부]를 표시하였음.

35) 재조대장경의 ‘縛’자가 화엄사 다라니에서는 ‘波’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화엄사 다라니 내 自心印陀羅尼를 필사한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필사 오류라 할 수 없으며 필사 저본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이 또한 후고에서 다를 예정이다.

종류	지편	다라니	내용
삭제부	6-1	2번	‘毗’와 ‘菩’ 사이에 ‘薩’을 잘못 필사하였다가 [삭제부]를 표시하였음.
	6-2	5번	‘麗’와 ‘市’ 사이에 ‘末’을 잘못 필사하였다가 [삭제부]를 표시하였음.
	6-3	2번	‘尼’와 ‘菩’ 사이에 ‘薩’을 잘못 필사하였다가 [삭제부]를 표시하였음.
	6-6	5번	‘那’와 ‘三’ 사이에 ‘那’를 잘못 필사하였다가 [삭제부]를 표시하였음.
전도부	6-2	5번	‘他揭’를 ‘揭他’로 전사하고 [전도부]를 표시하였음.
반복부	3-5	2번	‘薩囉薩囉’가 놓일 위치에 ‘薩囉’와 [반복부]를 적었음.
	3-9	4번	‘跋羅跋囉’가 놓일 위치에 ‘跋囉’와 [반복부]를 적었음.

위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삭제부는 10회, 전도부는 1회, 반복부는 2회 확인되었다. 각종 부호가 [필사 3]과 [필사 6]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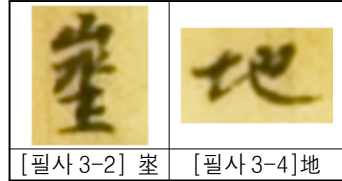
6. 측천무후자의 사용

이미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보고된 것처럼 『백지묵서 화엄경』(국보 196호, 리움 소장), 불국사 석가탑 출토 『무구정경』(국보 126호)과 같은 통일신라 시대의 사경이나 목판 인쇄물에는 측천무후자가 사용되곤 하였다.³⁶⁾ 화엄사 다라니에서도 측천무후자를 확인할 수 있다. 측천무후자가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17자 중 다라니에 필사된 해당 한자는 ‘地’뿐인데, ‘地’의 측천무후자 ‘塞’가 확인된다. 석가탑 『무구정경』에는 ‘地’뿐 아니라 ‘證, 授, 初’의 측천무후자도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朴相國 1999). 그러나 ‘證, 授, 初’는 『무구정경』의 경문에 쓰인 것이며 다라니에는 사용되지 않아 화엄사 다라니와 석가탑 『무구정경』에 사용된

36)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무구정경』 사경 자료에도 측천무후자가 5종 15자 확인된다고 한다 (한국일보, 1998년 6월 14일자 제1면).

측천무후자를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 한편 770년경에 인쇄된 일본의 백만답 다라니에는 측천무후자가 쓰이지 않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다른 지편에서는 ‘地’가 쓰이지 않고 측천무후자 ‘塞’만이 이용되었는데, [필사 3]에서는 ‘地’와 ‘塞’가 모두 쓰였다는 점이다. [필사 3-2]에서는 ‘塞’가 쓰였으며, [필사 3-4]에서는 ‘塞’와 ‘地’가 둘 다 쓰였고 [필사 3-5], [필사 3-6], [필사 3-7], [필사 3-10]에서는 ‘地’만 사용되었다. 뒷부분으로 가면서 ‘地’로 바뀌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7. 결론

지금까지 화엄사 서오층석탑 발견 다라니의 내용과 필사 양식, 부호, 측천무후자의 사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화엄사 다라니는 통일신라 시대에 유통된 무구정광다라니 전체 모습을 재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 불국사 석가탑 출토 『무구정경』 등 동시대에 형성된 다라니류 유물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료이다. 그동안 통일신라 시대의 다른 『무구정경』 자료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지만, 본고를 통해 화엄사 다라니의 자료적 가치가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확인된 화엄사 다라니의 특징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화엄사 다라니는 여섯 개의 다라니가 한 세트가 되어 반복적으로 필사되었으며 최소 28회 필사되었다. 또 매회의 시작 부분에 다라니명 ‘最勝無垢清淨光明大根牽陁羅尼’를 필사하였다. 여섯 개의 다라니를 한 차례 필사하고 다시 다음 차례의 다라니를 필사할 때에는 空行을 두어 구분하는 경향을 보였고, 한 회 안에서 다라니와 다라니를 구별할 때에는 隔字를 두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다라니 안에서 다라니의 암송을 위한 표시들은 필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통일신라 시대에 납담용 무구정광다라니를 제작할 때, 나원리 다라니처럼 동일한 다라니를 여러 번 연속해서 필사하는 방식과 화엄사 다라니처럼 여섯 개의 다라니를 세트로 반복하여 필사하는 방식이 공존하였으며, 화엄사 다라니와 나원리 다라니가 암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납담을 위해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삭제부로는 ‘卜’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삭제부 ‘卜’이 쓰인 매우 이른 시기의 용례이다. 이외에도 전도부, 반복부 등의 부호가 확인되었으며, 다른 신라 사경처럼 축천무후자 ‘塞’도 사용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필사 양상 중에는 朴智善(1997)에서 최소 7명 이상으로 생각되는 여러 명의 필체가 확인된다고 지적한 것처럼³⁷⁾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종이에 필사하였음을 짐작케 하는 것들이 있었다. 필사 오류를 교정하기 위한 삭제부가 [필사 3]과 [필사 6]에 집중된다는 점, 다라니 간 구분을 위한 隔字가 [필사 2]와 [필사 6]에서만 엄격히 나타나는 점, 다라니 중간의 ‘莎詞’ 뒤에 隔字를 둔 사례가 [필사 6]에서만 나타난다는 점, 축천무후자 ‘塞’ 대신 ‘地’를 쓴 것이 모두 [필사 3]이었다는 점 등, 모든 지편에서 공통되지 않고 특정 지편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지편의 필사를 담당한 필사자의 개인적인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金聖洙. “韓國 印刷文化의 始原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13(1997. 6). 1-46.
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 고증에 의한 목판인쇄술의 기원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9.
金聖洙.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研究』. 서울: 淸州古印刷博物館, 2000a.
金聖洙. “석가탑 『無垢淨經』의 陀羅尼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20(2000b).

37) 1996. 3. 29. 문화체육 보도자료에서는 5인 이상의 필체로 보았다.

12). 299-323.

남유미. “755年 新羅 白紙墨書 『大方光佛華嚴經』의 形態.” 『書誌學報』 39(2012.

6). 131-148.

문화유산국 유형문화재과. 『世界最古의 印刷物 『無垢淨光大陀羅尼經』』. 대전: 문화재청, 1999.

문화체육 보도자료. “화엄사 서오층석탑내의 지류문화재 긴급보존처리완료.” 『保存科學研究』 18(1996. 3).

문화체육 보도자료.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출토 금동사리함내 발견 유물.” 『保存科學研究』 18(1996. 5).

문화체육 보도자료. “구례 화엄사 서오층석탑(보물 제133호) 출토 유물의 보존처리.” 『保存科學研究』 18(1997. 5).

朴相國. “舍利信仰과 陀羅尼經의 寫經片.”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사리장엄』.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朴智善. “華嚴寺 西五層石塔 出土 紙類遺物 保存處理.” 『保存科學研究』 18(1997. 11). 135-169.

박지선. “지류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사리장엄』.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朴智善. “한국 고대의 종이유물.” 『東方學誌』 106(1999. 12). 9-41.

박지선. “고대 사경지 제작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56(2013. 12). 499-520.

신라사경 프로젝트팀. 『결과물(1) 東大寺 소장 『大方廣佛華嚴經』 권제12~20 교감 연구』. 한국연구재단 결과보고서, 2014.

신라사경 프로젝트팀. 『결과물(5) 華嚴寺 西五層石塔 (納塔) 陀羅尼 교감 연구』. 한국연구재단 결과보고서, 2014.

元善喜. “신라 하대 無垢淨塔의 건립과 『無垢淨光大陀羅尼經』 신앙.” 『한국학논총』 30(2008). 125-173.

柳富鉉.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時期에 관한 研究: 諸本の 文字異同을 중심으로.” 『東方學誌』 106(1999. 12). 511-574.

- 柳富鉉.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사용된 武周新字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4(2000. 12). 49-64. 한국도서관·정보학회.
- 유성열, 강대현. “『釋教最上乘秘密藏陀羅尼集』에 나타난 地藏菩薩陀羅尼.” 『韓國佛敎學』 74(2015. 6). 149-172.
- 이건식. “中國 古代 標點 符號의 類型과 韓國 古代와 中世의 標點 符號에 대하여.” 『口訣研究』 31(2013. 8). 31-70.
- 李弘植. “慶州 佛國寺 釋迦塔 發見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 『白山學報』 4(1968. 5). 167-198.
- 임세운.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 발견 금제여래좌상 연구.” 『美術史學研究』 281(2014. 3). 5-28.
- 鄭在永. “新羅 寫經에 나타나는 校正符號에 대하여.” 한국목간학회 워크숍(2010. 8). 10-30.
- 鄭在永. “新羅 寫經에 대한 研究.” 『口訣研究』 33(2014. 8). 97-131.
- 周旻美. “韓國 佛舍利莊嚴에 있어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意義.” 『불교미술사학』 2(2004. 10). 164-196.
- 천혜봉. 『신라 간행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고려의 중수문서의 연구』. 파주: 범우, 2013.
- 黃壽永. “奉化 西洞里 東三層石塔의 舍利具.” 『美術資料』 7(1963).

